

예정론의 목회학적 재조명

김 상 복

- 할렐루야교회 담임 목사
-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

서 론

지난 2천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예정론의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수긍할 만한 완전한 대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이해될 때까지 새롭게 생각해 보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예정론은 4세기의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논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알미니우스와 칼빈에 이르러 신교 신학의 2대 산맥을 이루어 상당한 감정적 대립을 자극하는 논쟁의 교리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교리를 믿었다가 태형을 맞기도 했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교회에서 파면을 당하고, 후에도 제대로 교회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는 경우마저 있었던 교리이다(예, 9세기 색슨 소두승 Gottschalk). 얼마 전 자신의 불륜 사건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미국의 어느 텔레비전 부흥사는 예정론을 “지옥에서 직접 수입한 교리”라고까지 공개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보아 예정론이 얼마나 자극적인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물론 예정론의 논쟁이 기독교에서 시작한 신학적인 논쟁만은 아니다. 이미 희랍 철학자들 간에 주전 4~5세기에 스토의 학파와 에피큐리안 학파 사이에 우주의 질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것인가의 논쟁이 이미 있었고 그 논쟁은 사실상 오늘까지도 철학에서 뿐만이 아니라 심리학에서도, 범죄학에서도 계속되고 있다(Determinism Versus Indeterminism). 이 문제를 목회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하다. 그렇다고 이번 기회에 모든 대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모두가 새롭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얼마 전 타도시의 한 성도로부터 필자에게 장거리 전화가 왔다. 대화의 내용 인즉 어느 장로교에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주일 아침 설교를 두 달 동안 예정론에 대해서 계속하는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가 질문을 했더니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자기를 너무 공격하셔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 교회를 떠나 다른 교파 교회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옮겨 간 그 교회 목사님도 예정론을 믿고 있어 그 교회에서도 또 떠나야 되겠다고 하니 자기 친구가 저에게 전화 상담을 해 보라고 권했다는 것이다. 신학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임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인 바, 목회자로서 적절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정론이 신앙과 목회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손해가 된다면 이 교리를 적절하게 이해한 것이 아닐는지 모른다.

예정론의 몇 가지 문제

첫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정론은 늘 논쟁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져 왔다. 신학생들 간에도 밤을 세워 기숙사에서 얼굴을 붉혀 가며 다투는 것은 어느 신학교에나 흔히 있는 일이다. 알미니안과 칼빈주의자 간에는 서로를 거의 이단시할 정도로 경계하는 제목이다. 둘째, 예정론은 대개의 경우 구원과 직결시켜 생각하고 있다. 어거스틴 때부터 칼빈이나 칼 바르트에 이르기까지 이중 예정론, 또는 절대 예정론이라 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영멸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셋째, 예정론과 전도와의 관계이다. 예정론은 전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견해다. 예정된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을 것이니까 전도에 열심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것이다. 넷째, 예정론 비슷한 교리 간의 문제이다. 예지(foresight), 하나님의 칙령(divine decree), 선택(election), 만물 예정론(foreshadowing) 등과 인간 예정론(predestination)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다섯째, 목회적인 상황에서 예정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료의 제한성

먼저 예정론에 대한 자료의 제한성을 지적해야 한다. '예정'이란 말은 신약에서 단 두 곳에 나타날 뿐이다(롬 8:29,30, 엡 1:5,11). 이 점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예정론을 논의하려면 이 두 곳의 내용과 그 콘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하려고 하는 문제는 인간 예정론(predestination)이요, 선택론(election), 예지(foresight)나 신의 칙령(divine decree)이

나 심지어 foreordination도 아니다. 이상의 개념들은 예정론과 상호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관심은 예정론이라는 제한된 주제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사한 교리인 선택론만 하더라도 자료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나 예정에 대한 언급은 그렇지 못하다. 때때로 유사한 개념들 사이에 정확한 구별 없이 표현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정론이 모호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예정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어야 하고, 예정론을 논의할 때는 그 콘텍스의 한계 안에서 우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분명한 계시 외의 생각이나 개념들을 학자 자신의 논리적 결론이나 개인적 이해에 근거한 것일 수는 있으나 계시에 근거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면 목회자들은 계시의 한계와 성경 자체의 콘텍스 안에서 강해하고 설교하고 가르친다면 예정론은 우리에게 논쟁의 주제가 되지 않고 축복의 교리가 될 것이다. 인간이 추리와 논리적 추적에 의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구태여 신학자들도 아닌 평신도들에게 강조할 필요가 없고 분명한 계시만 분명하게 가르치고 불분명한 계시는 불분명하게, 비계시적인 논리적 견해들은 신학자 개인의 의견 정도로 알아두고 참고하면 될 것이요, 구태여 목회의 성패를 걸고 비계시적인 결론을 고집함으로 교인들을 소외시킬 필요는 없다. 예정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있는 구절은 다음의 구절에 제한되어 있다.

로마서 8:29, 30.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4~6, 11.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정론의 축복

로마서 8장의 “미리 정하셨으니”라는 표현이 ‘예정 (predestinated)’이란 단어에 해당되는데 그리스어로 *proorizo*이다. ‘pro’는 ‘미리’, ‘전에’라는 뜻이 있

고 'orizo'는 '지정하다', '임명하다', '정하다', '결정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리 정하다', '이전에 결정하다'고 할 수 있다. 시간, 장소, 음식 주문, 법, 한계 등을 결정하는 데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

바울 선생이 예정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예정론을 이해하는 데 유익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두고 하는 말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임을 알 수 있다. 로마서 8:10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자"라고 말했고, 11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18절에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했고, 23절에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요, 24절에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함으로써 편지를 쓴 대상은 이미 구원 받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구원 받은 자들"이란 말을 쓰면서 예정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 구태여 예정론을 확장 적용할 필요가 없다. 구원 받기 이전 사람들이나 구원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은 로마서 8장의 의도는 아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미리 예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인식하고 놀라움과 감격과 감사를 체험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지 구원 받지 못하고 죽어 간 사람이나 아직도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다. '예정'이란 단어가 쓰여진 이와 같은 감격적인 의도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목회자들의 임무요 바울의 의도였지, 예정론을 통해서 근심과 논쟁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은 전혀 성경의 의도와는 반대되는 접근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바르트의 이중 예정론은 계시의 한계성을 넘어선 논리적 추리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 예정론은 논리적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에서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목회자들이 설교 시간에 일부러 거론하여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구원 받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예정했다고 바울이 로마서 8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만 성도들에게 말해 준다면 그들이 깨달을 때에 놀라운 소식이요 상당한 감격을 일으켜 주고 예정론은 결국 축복의 교리가 된다.

딤크의 이야기

여러해 전 미국 동부에서 공부하다가 인디애나로 이사갔을 때 톰 에이블이란 기독교인을 알게 되었다. 신실한 사람인데 그분의 동생이 믿지 않아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다. 어느 날 저를 만나자 자기 동생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 달

라고 부탁을 했다. 약속한 날에 저녁에 네 식구가 사는 넓직한 집에 찾아갔다. 얼마간 대화를 하고 나자 덕은 녀장의 종이에 질문할 것을 잔뜩 써 들고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첫번째 질문은 “어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치광이들 같은냐?”고 하면서 포문을 열었다. 믿는 친구가 교회에 가자고 못살게 굴어 처음으로 그 친구의 교회에 갔더니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고함을 지르고 뛰기도 하고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들이 미친 사람들 같아서 정이 떨어져 다시는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 “왜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짓들을 해서 쫓아내느냐”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을 했다. 그 분이 처음 갔던 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미치기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아니냐?”고 말했더니 안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그런 짓은 안한다.”고 대꾸를 해 왔다. “당신들도 돼지 가죽에 바람을 집어넣어 농구 볼 하나를 베스켓에 던져 집어넣었다고 뛰고 고함지르고 옷옷을 벗어 던지고 야단 범석하지 않느냐? 그까짓 공 하나 넣었다고, 사람의 성격과 취향은 온갖 종류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좀더 감정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좀더 정중하고 ... 이처럼 다양하므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장소가 다를 뿐이지 마찬가지로 아니냐? 그러니 믿는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대답했더니 대답을 들으니까 그건 그런 것 같다고 말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네 번째 질문까지 왔을 때 4 페이지나 되는 질문을 다 대답하려다가는 밤을 새워도 안 될것 같아 당신이 그렇게 질문이 많은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를 해결하겠는가, 아니면 밤새 당신의 질문에 다 대답해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한 가지가 무엇이나고 물어왔다. 그래서 당신이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영적인 세계가 이해되지 않으므로 질문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설명했더니 그 날 온 가족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예수 믿게 되었다.

한 달 가량 지나며 성경도 읽고, 교회도 가고, 신앙 서적도 읽으며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덕에게서 전화가 왔다. 화가 나 있었다. 이럴수가 있느냐면서 불평을 했다. 자기가 어느 목사의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도록 예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가도록 예정했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를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예정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고 화를 냈다. 이럴수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그를 이해했다. 그래서 나는 덕에게 이해시키려고 노력했다. 당신이 나를 만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 받았는데 예정되었다는 것은 당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창세 전에 당신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국 전쟁을 통해 나를 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남한에서 미국의

로, 동부에서 인디아나로 보내 주셨고, 당신의 형을 만나 당신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였고, 당신과 당신 가족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설명을 했다. 예정론은 구원 받은 당신과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라고 말해 주었다. 설명을 듣고 나니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덕은 어째서 자기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셨느냐고, 놀랍고도 감격스럽다고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고마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예정론의 뜻이라고 설명을 했다.

예지와 구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했다. “아신 자”란 무슨 뜻인가? ‘안다’는 단어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쓰여지고 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의 관계를 표현하면서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창 3:1)라고 할 때 ‘동침’이라는 한국어 번역의 원어가 ‘안다’는 말인데 영어 성경에는 “Adam knew Eve his wife”라고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 “아기를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와 동침치 않았다.”고 할 때에도 같은 ‘안다’는 단어로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고 하신 말씀도 동일하다. 즉 친밀한 관계 수립이 지배적인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쪽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시작하신 독자적이요 일방적인 사랑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은 당연하다(요일 4:10).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렘 31:3) 그 하나님쪽에서 사랑의 추적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사랑을 누가 감당하라! 하나님의 끝없고 영원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버렸다. 당신께서 이미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고 했다.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예정된 자들이요, 예정된 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또 그들이 믿게 되고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들을 변화시키시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롬 8:29)고 말씀하셨으며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완전히 닮게 되는 것이 영화의 마지막 단계이다.

그래서 “미리 안다”는 표현이 구원의 단계이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은 구원 보다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다고 분명히 나타나 있다.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은 구원쪽보다는 구원 받은 후로부터

영화롭게 되는 순간까지에서 벌어지는 성화의 과정이다. '구원'이라 하면 넓은 뜻으로서는 예지로부터 영화의 단계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구원으로 보고, 구원 받은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성화로 볼 때 로마서 8장의 문맥 속에서는 예정이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

예정과 성화

그러나 지금까지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 받도록 미리 정하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이중 예정론을 펴며 예정은 성화보다는 구원과 직결시켜 왔다. '예정'이란 단어가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는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에는 예정과 구원을 직접 연결시키고 있지 않다. 더욱이나 멸망 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중 예정론의 뒷 부분은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본문에는 예정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 생각을 학자들의 논리적 추리에 의하여 창출해 낼 수도 있겠고, 성경 공부 시간에라면 토론과 질문과 대답을 통해 의문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 시간에 거론할 필요는 없다. 멸망할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개념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있지 않다. 더욱이나 설교의 대상에는 지식인들부터 무학자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는데 학자들도 혼란을 일으키는 이중 예정론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구태여 신학적 논쟁을 강단에서 벌일 필요가 없다. 목회자는 본문의 한계 안에서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면 족하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은 따로 성경 공부 시간에 강의와 질의의 기회를 통해서 자세히 취급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로마서 8장 본문에서는 한 가지 결론을 찾을 수 있는데 예정은 구원보다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름을 받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믿은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들을 미리 정하셔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였고 그들이 완전히 예수의 모습을 닮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로마서 8:29, 30을 단계적으로 재정리하면 이상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영화를 책임지고 성취시키고 계시다. 그래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바울은 쾌재를 불렀던 것이다.

에베소서 1장에서도 '예정'이란 단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보다는 구원의 목적과 관계되어 쓰여져 있다. 예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엡 1:11).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

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엡 1:4~6).

‘택하사’, ‘예정하사’ 라는 두 표현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것이다. 이 과정이 완성되는 날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다. 그 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깨끗케 된다(요일 3:2,3). 이것은 선택의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정론을 논의하고 있다. 여기에 구별이 있다.

“예정”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의 법적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Having predestinated us unto the adoption of sons by Jesus Christ to himself”)고 했다. 양자로 인정 받는 것은 구원의 단계라기보다는 구원 받은 자가 받는 특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특권을 위한 예정이지 구원 자체를 위한 예정이 아니다. 더욱이나 어떤 사람을 지옥 가도록 예정했다는 말은 예정이란 단어가 직접 쓰여져 있는 두 본문의 콘텍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여기서 양자로 삼는다(huothesia, “son-placing”)는 뜻은 20세기 문화에서 생각하는 양자 삼기가 아니고, 로마 시대의 양자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기 아들이 태어난 얼마 후에 법적인 상속자로 삼는 절차이다. 아이들이 어려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라도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자동적으로 받지 못했고 법적 양자의 절차를 밟아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서 현대의 양자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예정의 세 가지 목적

에베소서 1:4,5의 말씀에서 예정하셨다는 문장에는 또 하나의 목적절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크신 은혜를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것도 구원 받는 것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을 드리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활동이지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로마서를 보나 에베소서를 보나 예정이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곳은 보이지 않는다. 선택론의 일부는 구원과 연결시킬 수도 있으나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의 예정론은 구원 후의 성화 과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 두 곳에서의 예정에 대한 가르침을 요약하면 (1) 예수님을 닮도록 예정되었다; (2) 양자가 되도록 예정되었다; (3) 하

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미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 구절에서는 이중 예정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예정의 강조가 구원과 멸망이 아니고 성화와 구원 받은 자에 대한 것이다. 다른 곳에 "야곱은 내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등의 예정설적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것은 "예정"보다는 선택론과 관계가 있고 예정이란 단어를 사용한 콘텍스에서 나타난 표현은 아니다. 그래서 종래의 방법처럼 예정이란 말을 구원이나 영멸과 관계시켜 사용함이 적합하지 못한 것 같다.

예정은 이미 구원 받은 자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교리이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로마서 8장과 에베소서 1장의 콘텍스에서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가? 물론이다. 구원 받은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구원 받기 전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로마서는 구원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신 자요 예정된 자라 했다.

예정과 전도

그러면 예정과 전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정론은 전도에 방해가 되는가? 그렇지 않다. 예정론을 종래의 의미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전도에 방해가 되기 보다는 은혜가 된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 리가 없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저 밖에서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전도하는 데 큰 격려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전도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 의심하는 경우에는 불안이 있겠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기 위해 국가마다 민족마다 언어마다 족속마다 곳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믿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또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반응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예정론은 제대로 이해하면 전도에 절대로 방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격려가 된다. 사실상 예정의 문제는 전도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이미 창세 전에 일어난 사건이어서 구태여 우리가 전도하는 데 관여시킬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일까? 나의 남편은 예정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전혀 불필요한 생각들이다. 우리는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어서 전하는 책임에 열중하면 그만이다. 전해서 믿은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사랑한 자요 예수 닮도록 예정된 자라고 바울이 설명하듯 할 때 구원 받은 자의 감격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결 론

예정론은 제한적이기는 하나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교리이다. 이 교리를 피할 방법은 없다. 사실상 피할 필요도 없다. 예정론은 구원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경륜을 일깨워 주어 감격을 느끼게 하는 교리이다. 그러나 예정론이 너무도 오랫동안 논쟁의 중심이 되어 온 것은 불행한 일이다. 믿는 자들의 축복과 은혜로 주신 가르침을 분쟁의 대상으로 삼아 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라도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채널이 되어야 한다. 본문에서 바울이 의도하지 않은 이중 예정론을, 분쟁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없다. 예정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요 만민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다. 믿는 자들은 예정하신 뜻대로 날마다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천국가는 그 날까지 찬양해야 할 것이다.